

소공동체 모임 길잡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2009년 11월호



천주교마산교구
www.cathms.or.kr

소공동체 기도

사랑의 근원이시며 친교의 모범이신 삼위일체의 하느님!
저희들은 초대 교회 신자들의 모범을 따라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 실천하는
소공동체 운동을 활발히 실천하여
친교와 봉사와 증거의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자 하오니
성령의 은사로 저희 마음을 새롭게 하시어
복음 선포의 사도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아멘.

소공동체 살림살이

주간	활동예정사항	나눔사항
연중 31주일		
연중 32주일		
연중 33주일		
연중 34주일		

복음나누기 7단계

1. 시작성가

2. 출석확인 및 인사 나누기

3. 복음나누기 7단계

1단계 주님을 초대한다.

“한 두 분이 기도로 예수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2단계 복음(말씀)을 읽는다.

“... 복음 ...장을 펴 주십시오.”

“어느 분이 ...절부터 ...절까지 읽어 주십시오.”

“다른 분이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 주십시오.”

3단계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구절을 외친다.

“각자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짧은 구절을 큰소리로,
세 번 선포해 주십시오.”

“어느 분이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 주십시오.”

4단계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는다.

“3분 동안 침묵하며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도록 합시다.”

5단계 각자의 마음속에 들려주신 말씀을 나눈다.

“순서 없이 자유롭게 각자의 마음속에 들려주신 주님의 말씀을 나눕시다.”

6단계 모임에서 해야 할 활동에 대하여 토의한다.

“지난 주에 공동체(각자)가 정했던 실천사항을 어떻게 실천했는지
나누어 봅시다.”

“우리가 이번 주(이번 달)에 해야 할 활동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무엇을 할 것입니까? 누가 할 것입니까? 언제 할 것입니까?)

7단계 자유롭게 기도한다.

“마음에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합시다.”

4. 소공동체 기도 및 영광송

나도 성인이 될 수 있다

오늘은 천국에서 하느님을 모시고 있는 성인들의 덕행을 기리고 본받으며, 그분들의 전구를 구하는 <모든 성인 대축일>입니다. <모든 성인의 날>이 생긴 유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 탄생 전에 로마에는 여러 신들을 위한 신전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판테온(Panteon) 신전이었습니다. 그 후 세월이 흘러, 로마에 가톨릭 교회가 번창하게 되자 그 신전을 성당으로 개조하면서 잡신들의상이 있던 곳에 여러 성인들의 성상을 모셨고, 순교자들의 유해까지 지하 무덤인 까따콤바(Catacomba)에서 옮겨왔습니다. 그리고 교황 그레고리오 4세는 이 성당을 모든 성인들, 이름을 알지 못하는 성인들에게 봉헌하고, 11월 1일을 기념일로 정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지내는 <모든 성인 대축일>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흔히 성인이라 하면,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시성한 분들을 말하지만, 넓은 의미에서 말하면 <천국에 있는 영혼은 누구나 다 성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비록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하느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분들이기에 그분들의 공덕을 기리고 공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인들을 최대한으로 공경할 수 있는 길은 바로 성인들을 본받는 것입니다. 성인들은 과거에만 존재해야 했던 분들이 아닙니다. 현재에도 있어야 하고 앞으로도 많은 성인 성녀들이 탄생해야 합니다. 물론 성인이 되는 길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 길에는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성인 성녀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성인이 될 수 있다>는 용기를 가지고 노력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느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레위 11,45)고 하였고, 예수님께서도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마태 5,48)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느님은 우리를 당신의 모상대로 창조하셨고, 그분이 지니고 계신 거룩함과 완전성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오늘은 일 년의 달력 안에서 기념하는 모든 성인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다시 한번 축하하고 기리자는 날이 결코 아닙니다.

성인들 머리 위의 후광

옛날, 아주 먼 옛날에 정말 성인(聖人)처럼 거룩하게 사는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주위의 다른 사람들은 그가 거룩하게 산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자신만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그러니까 자신은 거룩한 줄 모르고 거룩하게 살고 있었던 것이다. 이 사람이 지니고 있는 특징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그 사람들의 과거에 대한 어떤 것에도 상관없이 항상 처음처럼 새롭게 대하는 것이었다. 하느님께서도 그를 사람들 중에 가장 거룩한 사람이라고 인정하여, 한번은 수호천사를 불러 그에게 모습을 보이고 소원을 하나 꼭 들어주도록 시켰다.

하느님의 명을 받은 수호천사가 그에게 모습을 보이고 소원이 무엇인지를 물었다. 그런데 그는 한사코 소원이라고는 없다고 하였다. 할 수 없이 천사가 “너에게 사람의 병을 치유하는 기적의 은사를 줄까?” 하고 묻자, 병자를 치유하는 일은 하느님께서 직접 하시는 일이라며 거절하였다. 그러자 천사가 “죄인들을 회개시켜 바른 삶을 살도록 하는 힘을 줄까?” 하고 또 묻자, 그런 일이라면 당신들 천사들이 해야 할 일이라며 거절하였다. 마지막으로 천사가 “그러면 너의 거룩한 삶을 사람들이 모범으로 삼아 존경할 수 있도록 해 줄까?” 하고 묻자, 그는 펄쩍 뛰면서 절대 안 된다고 하였다. 그렇게 되면 자신이 교만해져서 사람들에게 오히려 해가 될 것이라고 하였다. 무슨 소원이든 한 가지는 꼭 들어주어야 한다는 명을 받은 천사가 빈손으로 돌아갈 수 없다며 난처해하자, 그가 말했다. “사람들이 저를 통해 착한 마음을 가지고 살도록 해 주시되, 그 사실을 내가 모르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였다. 천사는 하느님께 가서 그대로 말씀드렸다. 하느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해줄 수 있을까 하고 곰곰이 생각하시더니, 천사를 시켜 그 착한 사람에게 후광(後光)을 걸어 주도록 하였다.

이것이 성인들의 후광(後光)에 관한 이야기이다. 그것이 바로 앞도 옆도 아닌 성인의 머리 뒤에 빛나는 광테이다. 자신은 볼 수 없고, 다른 사람만 볼 수 있는 후광인 것이다. 물론 살아 있는 우리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함께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후광을 빛내고 있으리라. 그들은 바로 오늘 복음의 아홉 가지 참된 행복의 길 중에서 하나의 길을 택하여 꽃꽂이 가고 있는 사람들이라.

오늘 복음 말씀의 주인공은 가난한 과부입니다. 가진 바를 하느님을 위해 아낌없이 봉헌한 과부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가난한 과부는 오로지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 무엇인가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것도 그날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 정작 필요했던 랩톤 두 닢(예, 일용직 노동자 임금의 1/64, 5만원:781원)을 모두 바칩니다.

가난한 과부는 자기의 삶과 마음을 봉헌했고 부자들이나 율법학자들은 다만 자기들이 가진 재산의 부스러기 정도를 바쳤을 뿐입니다. 복음에서도 과부의 가산을 등쳐 먹는 율법학자들의 겉치레 믿음과 가난한 과부의 믿음은 뚜렷하게 대비되어 나타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율법학자들을 비난하신 말씀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태도가 문제입니다. 허영심과 체면, 탐욕과 이기심, 집착과 착취... 그리고 하느님을 자신의 출세와 성공을 위한 수단으로 삼거나 믿음과 기도 전례생활을 한낱 취미생활 정도로만 여기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삶의 알맹이는 자기 차지요, 삶의 부스러기 정도만 체면을 위해 하느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단지 우리에게 영웅적인 용기를 발휘한 가난한 과부의 모습을 보여주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하느님을 삶의 중심으로 선택할 때 얼마나 영웅적인 용기를 드러낼수 있는가 하는 사실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마저도 요구할 권리를 갖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에게 당신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있는 그대로의 삶 그리고 진실함을 바라십니다. 그것은 하찮은 우리의 재산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이요, 정성입니다. 우리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통해서, 보잘 것 없는 이웃들 안에서, 그리고 공동체인 가정과 직장과 학교 안에서 우리들의 마음, 곧 하느님과 이웃을 섬기고 나누고자 하는 마음을 청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봉헌해야 할 하느님은 바로 지금 그리고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자선과 회사

좋은 것일수록 그 부패는 더욱 나쁜 법이다. 재물에 따르는 부패는 더욱 더 그러하다. 자기 소유물에 <소유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참된 자기는 잊어버리고 자기가 가진 것으로 자기가 다른 사람들 보다 나은 줄로 안다. 자기 집 앞에 서서, 혹은 자기 자동차 안에서, 자기가 집이나 자동차 만큼이나 위대하다고 여긴다. 더 훌륭한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더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이 됨으로써 다른 사람들 보다 나은 사람이 된 듯한 착각을 하며 살아간다. 이것은 예부터 인류에게 극히 공통된 환상 중의 하나였다. 그러나 이는 하느님 나라로 들어가는데 가장 무서운 장애가 되는 것의 하나이기도 하다.

예수님께서서는 사람들에게 재물로부터 내적으로 해방되기를 바라신다. 소유하는 것보다 나누고 베풀며 주는데서 행복을 찾는 마음의 가난을 요구하신다. 실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계해야 할 것은 상대방의 탐욕으로 부터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탐욕이다. 따라서 가진 것을 나누며 재물을 회사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오늘 복음에서도 구차한 중에 가진 것을 복을 내어 놓은 과부 이야기가 나온다. 렘톤은 당시 이스라엘 화폐 가운데 가장 작은 액수의 동전이다. 그러나 이 여인은 그가 궁핍한 가운데서도 가진 것을 모두 봉헌하였기에, 진정으로 하느님을 섬길 줄 아는 참다운 신앙심을 높이 평가하고 계신다.

자선과 회사, 이에 대해 복음 말씀은 어떤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규범을 정해 놓지 않는다. 자기 생활에 해가 되지 않을 정도라야 한다는 말조차도 없다. 회사나 자선을 베풀면 혹시 내가 힘들어지지 않을까 자질구레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가난한 여인은 자신의 존엄성, 희망, 미래, 안전장치 그리고 기본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것마저도 철저히 봉헌하였다. 우리가 하느님께 바칠 무엇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삶으로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오늘은 연중 33주일이며 평신도의 날이기도 합니다. 전례력으로나 시기적으로도 한해의 마무리를 지을 시점에 와있기에, 여러 가지 생각과 정리를 하게 되는 때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의 주제는 종말에 관한 내용입니다. 종말의 교훈이 주는 내용은 흔히 죽음, 마지막, 구원, 천당과 같은 개념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희망’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강조하는 종말의 의미는 모든 것이 사라지는 끝장의 모습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희망과 가치를 확신시켜주며 신앙에 대하여 새롭게 묵상하게 해줍니다.

희망은 다가올 미래를 앞당겨 살아가는 힘입니다.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희망을 보증합니다. 때때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실망과 좌절이 신앙인의 덕성과 위배되는 가장 큰 잘못이라는 점도 바로 희망의 중요성을 말해줍니다. 희망은 다시 시작하는 힘입니다. 희망은 다시금 하느님께 신뢰하는 결단입니다. 희망은 바로 십자가의 확인이며 이 확인을 통해 부활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복음 말씀에서 “너희는 무화과 나무를 보고 그 비유를 깨달아라. 어 느덧 가지가 부드러워지고 잎이 돋으면 여름이 가까이 온 줄 알게 된다.”(28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30b-31절)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매해 새 잎이 돋아납니다. 종말은 바로 우리의 삶 안에서 매일 체험되는 하느님의 손길입니다. 매순간을, 매일 매일을 마지막으로 알고 최선을 다하는 신앙인의 삶에 종말과 희망의 참뜻이 함께 합니다.

오늘 복음은 실상 우리를 새 하늘과 새 땅에 초대하시는 하느님의 초대장입니다. 종말, 세상의 마지막이라는 두려움에 얽매이기 보다는 오히려 희망에 부푼 기쁜 마음으로, 초대받은 손님으로서의 맞갖은 준비를 잘 갖추는 자세가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세상 속에 살되...

오늘은 평신도 주일이다. 한국 교회가 1968년 제정한 평신도 주일은 평신도 사도직에 특별한 관심을 표명하고 그 중요성을 강조한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가르침에 따라 평신도 스스로 자신의 사도직(세상의 빛과 소금)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격려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평신도 주일은 단순한 기념일이라기 보다는, 그들이 교회 공동체 안의 소중한 식구요, 주역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한편으로는 평신도의 위상과 나아가야 할 바를 제시하는 날이다. 해마다 전례력으로 연중 마지막 주일(그리스도 왕 대축일) 바로 전 주일을 평신도 주일로 지내고 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까지는, 평신도를 <듣고 따르는 교회>라 하여 평신도의 수동성이 강조됐으나, 공의회를 통해 평신도의 역할이 크게 부각되었다. 공의회는 평신도가 성직자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직자가 하느님의 백성인 평신도의 구원을 위해 존재한다는 정신에 따라 평신도의 특수사명을 인정하고 평신도를 통해서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평신도는 성직자와 수도자들과는 달리 세상에서 살아간다. 훌륭한 평신도의 삶은 성직자와 수도자처럼 신앙이 깊을수록 세속을 떠나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한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평신도의 가장 큰 특징은 ‘세속성’이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평신도에 대하여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다. “평신도들의 임무는 자기 소명에 따라 현세의 일을 하고 하느님의 뜻대로 관리하며 하느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것이다. 평신도들은 세속 안에서, 곧 각각의 온갖 세상 직무와 일 가운데에서, 마치 그들의 삶이 짜여지는 것 같은 일상의 가정 생활과 사회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거기에서 하느님께 부르심을 받아, 자기의 고유한 임무를 수행하며 복음 정신을 실천하고 누룩처럼 내부로부터 세상의 성화에 이바지하며, 또 그렇게 하여 무엇보다도 자기 삶의 증거로써 믿음과 사랑과 사랑으로 빛을 밝혀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보여 준다”(교회헌장 31장)

십자가 희생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왕권

교회력으로 한해를 마감하는 마지막 주일인 오늘이 그리스도 왕 대축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은 의미가 깊습니다. 오늘의 복음 말씀은 그리스도의 왕권의 깊은 뜻을 밝혀줍니다. 빌라도에 의한 예수님의 재판 장면은 그리스도의 왕권과 세속의 왕권이 어떻게 차이를 드러내는가를 보여줌으로써 장차 완성될 하느님의 나라가 이 세상의 왕국과 어떤 차이를 드러내는지를 보여줍니다.

“당신이 유대인들의 임금이요?” 하는 빌라도의 질문에 예수님은 내 나라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내 나라 운운하는 것으로 보아 저 자가 분명 자신을 왕으로 생각하고 있음은 분명한 것 같은데, 내 나라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는 말은 또 무슨 말인지, 이 세상의 문제에만 얽매어서 천상적이고 영원한 것에 대한 가치를 바라볼 줄 모르는 빌라도에게 있어서 그것은 전혀 알아 들을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라는 자가 바로 지금의 내 이익과 안녕에 지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외의 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빌라도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늘상 세상의 것에 관심을 두고 있기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못하고 예수님에게서 끊임없이 세상의 왕과 같은 현세적인 구세주의 모습을 찾으려 하는 모습이 그것입니다. 이러한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진정한 왕, 백성을 섬기는 왕이 되신 예수님의 참 모습을 우리의 삶 안에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하게 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결코 현세적 욕망을 채워주는 구세주가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른 것이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제대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무릇 세상의 왕들 처럼 화려하고 영예스러운 모습으로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처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무기력하게 돌아가시기까지 하늘에 순종하고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는 참다운 왕의 모습을 알아 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천심, 민심

동양 철학에서 왕(王)이라는 말이 내포하는 뜻과 성서적인 왕의 개념을 생각해 보면 재미있다. 임금 왕(王)자를 풀이하면, 맨위에 있는 ‘一’은 하늘을 의미하고, 가운데 ‘一’은 인간을, 맨 밑의 ‘一’은 땅을 뜻한다. 그리고 ‘一’, 가운데 굽는 한 획은 하늘과 인간, 땅을 통과하면서 그 주축을 잡아주는, 다시 말해 균형을 유지하며 만물을 다스린다는 뜻을 지닌다. 이것이 바로 임금 왕(王)의 의미라는 것이다. 왕은 본시 하늘의 명을 따라 백성을 다스려야했기에 하늘의 명(天命)과 민심을 거스리는 왕은 그 행위 자체로써 왕의 자격을 잃게 된다.

중국 주(周)나라 (B.C 1100-722년경)의 무왕(武王)이 포악하기 이를 데 없던 상(商)나라(B.C 1500-1100년경)의 마지막 왕 주왕(紂王)을 치려할 때, 군사들을 모아 놓고 했던 연설 중에 다음과 같은 명언을 남겼다. “하늘이 백성을 사랑하시거든 임금은 하늘을 받드느니라”(惟天惠民 惟辟奉民) 모름지기 왕의 본분은 하늘의 마음을 백성의 마음속에 심고, 백성의 마음 안에서 하늘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데에 있다는 뜻이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왕이라는 존재, 절대 권력을 가진 자는 하늘을 받들어 백성을 섬기는 봉사자요, 횡포가 아니라 사랑으로 헌신하는 자이다. 그리고 왕으로서 지나는 절대 권력은 헌신과 봉사를 더욱 잘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할 뿐이다.

임금 왕(王)자를 신앙적으로 풀이해 볼 수 있다. 맨위에 있는 ‘一’은 하늘을 의미하고, 맨 밑의 ‘一’은 땅과 백성을 뜻한다. 땅과 백성들 마음에 ‘十’를 세워 하늘까지 닿았다. 바로 ‘十’은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시다. 십자가,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느님과 일치하게 된다. 바로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진정한 왕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의 진면목인 동시에 오늘 함께 기념하는 그리스도 왕 대축일이 의미하는 바이다.

과거, 현재, 미래

똑같은 시간의 연속이며 반복인데도 오늘 만큼은 더욱 새로운 의미를 느끼게 됩니다. 성당에 꾸며진 대림초, 자색 제의 등의 전례 분위기가 강한 목소리로 우리의 마음을 때립니다. 오늘은 대림 1주일, 교회력으로 대림절은 한해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일상의 시간으로는 연말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신앙적으로 연결해주는 대림시기를 시작합니다.

대림시기는 그리스도의 탄생일인 성탄과 이 세상 종말의 공심판을 기다리는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림시기는 크게 둘로 나누어지는데, 첫째 시기는 대림 첫주일부터 12월 16일까지이며, 종말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둘째 시기는 곧 오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고대하며 성탄 준비를 하는 9일 기도 기간입니다.

대림 시기의 여러 의미 중에서 가장 깊은 뜻은 역시 ‘기다림’입니다. 미래, 희망, 구원, 공동체의 평화를 기다립니다. 올바른 기다림은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연결합니다. 이미 오신 메시아의 의미를 깨닫고 현재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현존을 확신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세가 그것입니다. 이 모두를 종합하는 삶이 대림시기를 사는 신앙인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점점 더 험하게만 변해가는 세상과 그에 못지 않게 사람들의 마음도 각박해져 가는 세대 속에서, 더 멀리 더 크게 울려 퍼져 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 방탕과 만취와 일상의 근심으로 너희 마음이 물러지는 일이 없게 하여라. 그리고 그날이 너희를 덮처럼 갑자기 덮치지 않게 하여라. 그날은 온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들이닥칠 것이다.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나 사람의 아들 앞에 설 수 있는 힘을 지니도록 늘 깨어 기도하여라.”(루가21,34-36)

대림절의 간략한 역사적 배경

대림절은 4세기경, 스페인과 프랑스에서 예수 성탄 대축일 전에 신자들이 영적인 자세를 가다듬으려 하는 마음가짐에서 시작되었다. 특히 프랑스에서는 투르의 주교 페르페뚜아(+490)가 성 마르티노 축일(11월11일)로부터 예수 성탄 대축일까지 매주의 3일씩을 소위 준비하는 시기로 정하였다. 그리고 아직 '대림'이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았고, 단지 '성 마르티노의 40일'이라는 표현을 썼다.

한편 당시 동방 교회에서는 8주간 동안 성탄을 준비하는 시기로 정하고 대림절이라 하여 중요시 하였다. 속죄의 시기로 간주하여 겸손한 참회와 회개의 정신을 강조하였으며 점차 대림절에 대한 이러한 정신이 유럽 전역으로 퍼져 나가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각 나라와 지방마다 기간과 날짜는 달랐다고 한다.

이후 6세기 경부터,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도 대림절 의식을 거행하게 되는 데, 애초 처음 시작되었던 프랑스와는 달리,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는 기쁨 속에서 성탄 대축일을 준비하는 축제로 지내기 시작하였다. 오늘날과 같은 4주간의 대림절 기간이 확정된 것은 7세기초, 성 그레고리오 1세 대교황 때 부터였으며, 그로부터 12세기경에야 이르러 가톨릭 교회전례에도 속죄와 종말의 그리스도 재림 준비 사상이 유입되어, 서서히 성탄축일 전 네 주간의 대림 기간이 정착되기 시작했다. 이후 이때부터 그리스도의 탄생하심과 세상의 종말에 재림하신다는 두 가지 의미가 결부되어 내려오게 되었다.

나무와 열매, 짐짓는 사람들의 비유

시작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26번 “이끌어 주소서” 1,3절을 부릅시다.

주님 초대하기

진행자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 주님, 이 시간 저희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소서.

— 주님, 저희들이 주님 나라의 성실한 일꾼이 되도록 사랑의 마음을 주소서.

삶의 이야기

진행자 사진을 보고 느낀 점을 함께 나누어 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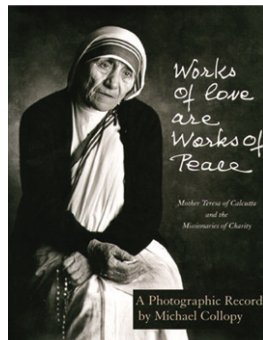
팔랑귀



거짓



마음의 창



진실

하느님 말씀

진행자 어느 분이 마태오 복음 7,15-20,24-27까지의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양의 옷차림을 하고 너희에게 오지만 속은 게걸 든 이리들이다. 너희는 그들이 맺은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볼 수 있다. 가시 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거두어들이고,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거두어들이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는 모두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모두 잘려 불에 던져진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이 맺은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볼 수 있다.”

“그러므로 나의 이 말을 듣고 실행하는 이는 모두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을 것이다. 비가 내려 강물이 밀려오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들이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 실행하지 않는 자는 모두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비가 내려 강물이 밀려오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휘몰아치자 무너져 버렸다.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다.”

진행자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읽어주십시오.

진행자 성경의 구절이나 단어를 3번씩 기도하듯이 외쳐주십시오.

진행자 3분 동안 침묵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도록 합시다.

진행자 성경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진행자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용비어천가 2장’을 보면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움직이지 않는다. 그 꽃은 화려하고 열매는 무성하다. 근원이 먼 물은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다. 이 물이 흘러서 내가 되고 마침내 바다에 이르게 된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것은, 그 뿌리가 깊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험볼트 레드우드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는 데,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습니다. 그것은 ‘함께’라는 말입니다. ‘함께’는 뿌리가 알아도 가뭄을 타지 않고 바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크고 높음을 자랑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는 미국 서부에서 세계 최대의 부피와 크기를 자랑하는 ‘레드우드’입니다. 보통 키가 100m 이상 자라고 밑동은 지름 10m를 넘나드는 것이 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나무의 뿌리와 깊이는 단지 2-3m로 짧게 땅 밑으로 뻗어나갈 뿐입

니다. 땅 밑으로 뻗지 못하는 대신에 25m 이상 번지면서 한 뿌리에서 여러 그루의 나무가 자란다고 합니다. 거목을 지탱해주는 힘은 깊은 뿌리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함께’에 있습니다.

함께 한다는 것은 너의 고통과 나의 기쁨이 그리고 너의 행복과 나의 설움이 뒤범벅되어 ‘생명’을 키우는 것입니다.

진행자 — 내가 성당에 나오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며, ‘누구’ 때문입니까?

— 나의 믿음의 행동을 보고 누군가를 변화 시킨 경험이 있습니까?

그리스도교 신앙인은 삼위일체 하느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의 믿음은 하느님 때문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우리들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어야 합니다. 서로의 모습을 보고 더 깊이 하느님을 믿고 체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기타토의

(소공동체의 활동 및 여러 가지 사항을 토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마침기도

진행자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합시다.

마침성가

진행자 가톨릭성가 400번 “주님과 나는”을 부릅시다.

‘나의 묘비명’

가정에서 온 가족이 동그랗게 모여 앉습니다.

가정기도를 시작하며

진행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중의 한 사람이 주님을 초대하는 기도를 해 주세요.

말씀과 함께

진행자 한 사람이 다음의 성경말씀을 읽어주세요.

† 야고보 서간 4장 14절

¹⁴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 버리는 한 줄기 연기일 따름입니다.

진행자 이번엔 다 함께 소리 내어 다시 한 번 읽어요.

(다 읽은 후) 잠시 동안 말씀을 묵상합니다.

말씀 나누기

① 성경 말씀을 읽고 느낀 점을 이야기해 봅시다.

② 나는 ‘죽음’ 이라는 단어를 보면 어떤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까?

③ 내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지 돌아가면서 발표해 봅시다.

함께 생각하기

진행자 오늘의 주제는 위령성월을 맞이하여 우리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기 위해 준비한 ‘나의 묘비명’ 입니다. 다음의 내용을 함께 살펴봅시다.

이제 눈을 ‘오늘’의 위치에서 오른쪽으로 천천히 이동해서 ‘사망’ 쪽으로 돌려보자. 앞으로 우리 앞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며 우리는 그것을 선택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적어도 우리의 태도와 행동만은 선택할 수 있다. 지금 당장 죽는다면 자신의 묘비에

가정 기도

어떤 문안이 기록될 것인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다. 혹자는 앞날이 구만리 같은 사람에게 웬 묘비명이나고 반발할 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고백하는 말이 있다. 그것은 마지막이라고 생각될 때 일상은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보이며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행동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는 법을 배우려면 반드시 죽음을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 받아들이고 싶지는 않지만 이런 묘비명을 감수해야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김철수의 묘, 0000년 생. 그는 하고 싶은 것과 갖고 싶은 것이 너무나 많았다. 그러나 학창 시절의 많은 시간을 TV 시청과 인터넷과 게임, 그리고 빈둥거리는 데 사용했다. 그러면서도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고 평생 투덜거리며 살았고, 마지막 순간까지 투덜거리다가 쓸쓸하게 잠들다. 반면, 상상만 해도 뿌듯한 묘비명도 있을 것이다.

김효정의 묘, 0000년 생. 그녀는 정말로 열심히 일했을 뿐 아니라 기발한 아이디어를 개발해 엄청난 돈을 벌었다. 자신을 위해, 그리고 불우한 이웃을 위해 막대한 돈을 쓰면서 한 평생을 아름답게 보내다가 평화롭게 잠들다.

- 이민규의 「네 꿈과 행복은 10대에 결정된다」 참조

생각 나누기

- ① 내가 1분 전에 죽었다고 가정하고, 나를 가장 잘 아는 어떤 사람이 나의 묘비명을 작성 한다면 그 내용은 어떨지 상상해서 적어봅시다.
- ② 이번에는 훗날 내가 죽었을 때 기록되기 바라는 이상적인 나의 묘비명을 적어봅시다.
- ③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느님 보시기에 좋을지 서로 발표해봅시다.

진행자 다음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 오늘 내가 헛되이 보낸 하루는 어제 죽어간 이들이 그토록 바라던 내일이다.

- 고대 그리스의 시인 소포클레스

★ 죽음에 대한 혐오감은 우리들이 인생을 헛되이 보냈다고 생각하는 마음과 비례하는 것이다.

- 영국의 수필가 윌리엄 해즐릿

인터넷 검색창에 ‘나의 묘비명’을 검색해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글들을 수없이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가급적 실제 표현 그대로 옮겼습니다)

(아이디 mil000) 내일까지인데 급해요. 중학교 1학년 도덕 13페이지의 나의 묘비명 쓰기 좀 해주세요. 제 장래희망은 변호사구요. 좀 길게 써주세요. 선생님이 워낙 무서워서 제발 좀 도와주세요.

(아이디 eog000) 나의 묘비명 쓰기 좀 도와주세요. 내일 학교 가져가야해요. 저의 꿈은 기술자 아니면 회사원 정도... 꿈이 조금 작죠 ㅎㅎ!

(아이디 dbs000) 나의 묘비명 쓰기가 숙제네요. 제가 글 쓰는 능력이 달려서.. 너무 과장되지 않고 평범하게 써주세요.

(아이디 gyw000) 도덕쌤이 오늘 숙제를 내주셨는데요~ 재수 없게 내일 시간표에 도덕이 있네요~ 뭐 당장 죽을 것도 아닌데 이따 걸 왜 쓰나... 쳇! 어쨌든... 제 꿈은 패션 디자이너인데요. 그냥 디자이너로 평범하게 살다 평범하게 죽은 묘비명 좀 써주세요!!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요? 왜 이런 글들이 수도 없이 난무할까요? 이게 아이들만의 잘못일까요?

가족회의

진행자 가족회의의 시간입니다. 가족이 함께 알아야 할 사항이나 의논할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하고 싶은 이야기나, 가족에게 바라는 점이 있으면 자유롭게 이야기 해 주세요.

평화의 인사

진행자 지금부터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방법은 온가족이 돌아가며 포옹하고, 부모님은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의 기도를 해주세요.

가정기도를 마치며

진행자 다 함께 손을 잡고 주모경을 바치겠습니다.

이달의 성인

- 1일 모든 성인의 날, 성 베니노 사제 순교자, 성 비고르 주교
- 2일 성 빅토리노 주교 순교자, 성녀 에우스또키움 순교자, 성 테오도토 주교
- 3일 성 마르티노 데 포레스 수도자, 성 후베르토 주교, 성 말라키아 주교
성 파르토 증거자, 성녀 실비아
- 4일 성 가롤로 보로메오 주교, 성 비탈리스와 성녀 아그리콜라 순교자
성 에메리코 왕자, 성녀 모데스타 동정
- 5일 성녀 김 루치아 순교자, 성 즈카르야와 성녀 엘리사벳 부부, 성 레토 사제
성 피비시오 주교
- 6일 성 레오나르도 은수자, 성 펠릭스 순교자, 성 세베로 주교 순교자
- 7일 성녀 마리아 도미니카 동정, 성 엔젤베르토 주교, 성 윌리브르토 주교
성 헤르클라노 주교 순교자, 성 플로렌시오 주교
- 8일 성 고데프ريد 주교, 성 윌레하도 주교, 성 끌라로 사제
- 9일 성 테오도로 순교자, 성 오레스메스 순교자, 성 우루시노 주교
성녀 에우스톨리아와 성녀 소빠트라 동정
- 10일 성 레오 대교황 학자, 성 안드레아 아벨리니 증거자, 성 트리폰
성녀 레스빠치오와 성녀 님파 순교자, 성녀 트리펜나와 성녀 트리포다
- 11일 투르의 성 마르티노 주교, 성 멘나스 순교자, 성 베라노 주교
성 아테노도로 순교자
- 12일 성 요사팻 주교 순교자, 성 디다코 증거자, 성 닐로 아빠스
- 13일 성 스파니슬라오 꼬스카 증거자, 성 호모보노 증거자, 성 편띠아노 주교
성 브리시오
- 14일 성 세리빠온 순교자, 성 히빠시오 주교 순교자, 성녀 베네란다 동정 순교자
- 15일 성 알베르토 주교 학자, 성 레오뵐도 증거자, 성 루뵐리오 주교, 성 마쿠또 주교
- 16일 스코틀랜드의 성녀 마르가리타와 성녀 제르트루다, 성 에드문드 대주교
성 에우케리오 주교
- 17일 헝가리의 성녀 엘리사벳, 성 그레고리오 영적자, 성 아니아노 주교
- 18일 성 로마노와 성 바룰라 순교자, 성 프릭디아노 주교
- 19일 성 뽀시아노 교황 순교자, 성 압디다 예언자, 성 바를람 순교자
- 20일 성 펠릭스 증거자, 성 에드문도왕 순교자, 성 베니노 주교, 성 아가뵐로 순교자
- 21일 성 콜롬바노 아빠스, 성 젤라시오 교황, 성 루포 증거자
- 22일 성녀 체칠리아 동정 순교자, 성 필레몬과 성 아피아 순교자, 성 프락마시오 주교
- 23일 성 클레멘스 1세 교황 순교자와 성 콜롬바노 아빠스, 성녀 펠리치타 과부
성 뚜루도 사제, 성녀 르끌레시아 동정 순교자
- 24일 성 크리스고노 순교자, 성녀 피르мина 동정 순교자
- 25일 성녀 가타리나 동정 순교자, 성 메르꾸리오 순교자
- 26일 성 레오나르도 증거자, 성 실베스텔 아빠스, 성 끈라도 주교, 성 시리치오 교황
- 27일 성녀 유 체칠리아 순교자, 성 야보고 순교자, 성 비르질리오 주교
성 바를라암과 성 요사팻 순교자
- 28일 성 야고보 증거자, 성 그레고리오 3세 교황
- 29일 성 사뚜르니노 주교 순교자, 성 필로메노 순교자, 성녀 일루미나타 동정
- 30일 성 안드레아 사도, 성 소시모 증거자, 성녀 마우라와 성녀 유스티나 동정 순교자

이달에 축일을 맞으신 반원들을 축하해주세요.